

장백산천지

제 352 호

2019 년 5 월 26 일

일요일

국가와 종족을 초월해 모든 민중과 함께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 을 축하



▲ 5월 12일, 홍콩파룬궁수련생들은 성대한 집회 대행진을 거행하여 사부님의 은혜에 경의의 감사를 올리고, 민중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의 복음을 전하였다.

[밍후이왕] 매년의 5월 13일 날이면, 세계 각지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각종 형식으로 그들의 명절_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하고 그들의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李洪志)사부님에 대한 경의와 감은을 표시한다. 왜냐하면 이날은 사부님의 생신이자 또 사부님께서 파룬궁 (파룬따파 라고도 부름)을 세상에 처음으로 전파한 기념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방 지나간 5월 13일은 제 20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 및 파룬따파 홍전 27주년 기념일이다.

1992년 리홍쯔(李洪志)대사님께서 법을 전수한 이래 현재 100여개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의 사람들이 파룬궁수련을 한다. '진선인(眞、善、忍)'의 보편원칙은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오호사해(五湖四海)에 복을 주었다. 리선생의 저작 <전법륜(轉法輪)>은 39종의 문자로 번역되었으며, 각 민족인사의 사랑을 깊이 받고있다. 리홍쯔(李洪志)대사님은 아시아 가장 영향력이 있는 50

명 인물에서 첫자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연속 4년간 노벨 평화상 지명 (諾貝爾和平獎提名)을 받았다.

매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와 정부 및 관원들은 파룬궁단체에 축하편지와 포상을 발급하였으며, 진선인(眞、善、忍)'의 가치를 인정하고 축복하였다.

5월 7일, 미국 뉴욕(紐約)주 참의원은 J1115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019년 5월 13일, 제 20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 하였다.

전체 참의원은 일어서서 현장에 있는 파룬궁수련생에게 박수로 축하드렸다.

5월 8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시 시장은 9년을 연속하여 5월 13일을 '오타와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하였다.

매년 명절기간 홍콩, 뉴욕, 런던, 파리, 시드니, 동경, 태북 등 세계 각 대성시와 수도에서 한차례 성대한 대행진을 맞이 했다.

방대하고 질서있는 악단대오와 각종 대행진 표어는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주목했다. 파룬궁은 중국공산당의 비방, 모함과 금지를 당했지만 오히려 세계 각지에서는 포상을 받았으며 세계 각나라에서는 파룬따파 이런 발전에 직면해 정권에 대해 위험이 구성된다는 감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국가와 인민의 영광으로 생각해 해마다 명절대행진을 특별히 포치하고, 교통을 관리해 가도를 내 주고, 경찰이 행진대오의 안전을 보호한다.

각국의 전통명절과 종교명절 외, 근 백년래 많은 국가와 민족도 새로 적지않은 기념성 명절을 증가 시켰다. 하지만 그 어느 명절도 '세계 파룬따파의 날' 처럼 부동한 국가와 부동한 종족을 초월해 발전하고 여러면의 찬성을 받은 적은 없었다. ◇



▲2019년 5월 12일, 제20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맞아 한국 파룬궁수련생들이 서울광장에서 단체 연공 시연을 하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파룬궁수련생들이 리홍쯔 사부님께 생신을 축하드리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3



한국 파룬궁수련생의 풍채



■ 파룬궁수련생 서울 퍼레이드에 한국 국민들 뒤따르며 감탄

모든 민중과 함께 축하하고, 모든 생명이 모두 감사해야 할 명절에 조선족 파룬따파 제자와 진상을 똑똑히 알고있는 조선족 중생들은 사부님의 은혜에 끝없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리홍쯔(李洪志)사부님께 진달래 꽃을 상징으로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사부님을 따라 수련하는 행복하고 기쁜 마음과 조사정법(助師正法)의 결심을 전합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眞善忍好)!'

전세계 파룬따파 제자와 진상을 똑똑히 알고있는 중생들에게도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삼가 축원합니다.

은사에게 큰절을 올립니다!



■ 한국 파룬궁 대오, 장려상 받아



■ 퍼레이드 행렬 속의 요고대와 꽃차대열

퍼레이드 행렬 속의 요고대와 꽃차대열



퍼레이드 행렬 속의 선녀대열



교통사고 중, 사부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다

[밍후이왕] 새해를 앞두고 저와 어머니(파룬따파 제자)는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대법 사부님께 삼가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사부님께서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16 년 7 월 하순, 어머니와 저는 쓰촨 티베트를 여행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내 바지 주머니에 진상 호신부 한 장을 넣어 주었습니다. 여행하면서 어머니는 가끔 나에게 일부 대법 진상을 말해주고, 때로는 동행한 다른 사람에게 대법 진상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곁에서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탄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렸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추월 차선에서 앞차를 추월하려 했지만, 앞차는 양보하지 않았고 곧 부딪힐 것 같았습니다. 운전사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워 관광버스는 곧장 우측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지면서 앞부분이 가드레일을 세게 들이받은 뒤, 또 좌측 중간 분리대로 돌진해 좌측으로 전복되었습니다. 전후는 몇 초였고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왼쪽 창가의 좌석에서 튕겨서 어머니를 지나 앞의 도로에 떨어졌

습니다. 당시 목이 비틀린 것 같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울음소리와 욕하는 소리가 어우러졌고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의식하고 좀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시더니 단지 귀의 피부가 조금 벗겨졌고 안경이 온전히 콧등에 있어 심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격동되어 기뻐하며 “딸도 아무 일이 없어요.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구급차가 우리를 현지 병원으로 옮겨 왔습니다. 목이 빼끗하고 머리를 부딪혔기에(당시 머릿속에 뭔가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다.) 의사는 목 CT 를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사부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너는 아무 일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CT 검사를 할 때 어머니는 줄곧 ‘파룬따파하오 찰싼런하오’를 염하고 대법 사부님께

나를 보호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한 시간 후 의사가 CT 필름을 보고 내 머리, 목은 정상이라며 우리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운전사 뒤에 있는 첫 번째 두 자리는 나와 어머니의 자리였지만 한 사람이 억지로 차지해 우리는 두 번째 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우리 앞뒤 좌우 사람은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친 상태가 더 심해 병원에서 3 개월 입원해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몸 안에 박은 못을 2 년이 되어서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나란히 앉은 오른쪽의 한 아주머니는, 어머니가 관광 도중에 그녀에게 파룬궁 진상을 말하고 ‘삼퇴’를 한 결과, 그녀도 무사했습니다. 그녀와 동석한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척추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록 관광버스는 폐차했지만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행 중의 다행입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선 교통사고에서 대법제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법제자와 인연 있는 중생을 구해주셨습니다. ◇

다신에 알고 있나요?

- 파룬궁 서적에서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 혹은 자살, 분신자살을 하지 않는다.
- 2001 년 8 월 14 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 기구는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중공대표는 한 마디 말도 못했다.
- 2003 년 11 월 8 일, NTD TV 에서 제작한 “텐안먼 분신자살” 진상기록영화 ‘위화’는 제 51 회 콜럼버스 국제 영화제의 명예 상을 수상했다. ◇



가족 2명이 박해로 사망, 지린 연길시 정아원 또 납치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吉林)성 연변(延邊) 엔지(延吉)시 파룬궁 수련생 정아원(鄭雅文)은 3 월에 신장(新疆)에서 여관에 머물다가 연길시, 화룡(和龍)시 경찰에게 납치당해 엔지로 돌아왔다. 지금 엔지시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돼 있다.

정아원의 여동생 정바오화(鄭寶華)는 여러 차례 불법 감금당했고, 두 차례나 불법 노동교양 처분 박해를 당했으며, 여러 해 동안 핍박에 못 이겨 유랑생활을 했는데, 결국 2015 년 10 월에 창춘(長春)시 병원에서 억울하게 사망했다. 당시 나이 겨우 44 세였다. 상세한 상황은 밍후이왕 문장 ‘정바오화가 생전에 연변에서 박해당한 더욱 많은 상황(사진)’과 ‘2 차 노동교양 박해, 수년간 유랑생활, 지린 정바오화 억울하게 사망’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정아원의 어머니 무커잉(穆克英)은 2007 년에 엔지시 경찰에게 박해당해 사망했는데, 당국에서는 ‘차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라고 공언했다. 이튿날에 감정하러 갔을 때, 사람을 곧 장의사로 보냈고 이미 복부 절개를 당해 봉합했었다. ‘사고를 낸 운전사’는 “110 과公安국에서 끌어갔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결말일 좋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이 다가가서 시신을 검사해보려 했을 때,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이 제지했다.

올해 약 50 세인 정아원 [다들 모두 그녀를 샤오란쯔(小蘭子)라고 불렀음]은 어릴 적에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았는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부터 몸의 질병이 전부 없어졌고, 사람됨이 열성적이고 다른 사람을 즐겨 도와주었다. 그녀는 집안의 기둥이었다. 오늘날 정아원은 또 납치당해, 가족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

정아원은 예전에 창춘 헤이쭈이쯔(黑嘴子) 노동교양소 2 대대 3 소대에 불법으로 감금당한 적이 있다. 어느 한번은 핍박에 못 이겨 대법을 모독한 프로그램을 볼 때 경문을 외웠다가, 류롄잉(劉蓮英) 마텐수(馬天舒),

웨이단(魏丹)에게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특히 류롄잉은 두 다리와 허벅지를 사납게 걷어찼는데, 정아원은 걸을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아래층으로 내려가 밥을 먹었다. 한번 (4 월 25 일)은 정아원이 식당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대법은 천고의 억울함’을 외쳐 악독한 경찰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느 한번은 연속 끌려다니다가 위층의 사무실까지 끌려갔다. 먼저 류롄잉이 절도범 루밍춘(鹿鳴春)을 시켜 가차 없이 마구 때리며 잘못을 승인하도록 핍박했다. 정아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대법이 좋다는 것을 선양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본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정아원은 구타당해 치아가 전부 흔들렸다. 특히 두 앞니는 단지 한 가닥의 선만 남았고 많은 피를 흘렸고 머리카락은 잡혀 거의 없었다. 악도들은 또 외부적으로 조작하여 머리를 부딪쳐 자살하려 한다고 말했다. 악도들은 이 수법이 여전히 안 되는 것을 보더니 곧 전기봉을 사용했다. 옷을 벗기고 땅 위에 굴렸다. 등에까지 전기충격을 가했을 때 전기가 없었다. 정아원의 눈은 구타로 시퍼렇게 되었다. 류롄잉은 시비를 일으키기 위해 확고한 대법제자 앞에서 “정아원이 미쳐서 함부로 부딪쳐 눈이 시퍼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서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재연도: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하다

2009 년 8 월 26 일, 정아원이 실종됐다. 멀쩡하던 사람이 집안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고박 5 일 동안 찾아 헤맸는데, 맨 마지막에 경찰의 손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경찰이 집안에 들이닥쳐

그녀를 납치했다. 화룡시公安국 국장 선거화(申革華)와 국가보안대대장 장바오화(張保華)가 직접 나서서 서성(西城)과 복동(福洞) 파출소의 경찰을 거느리고 잔인하게 정아원을 고박 6 일 동안 박해했다. 그 기간에 그녀에게 담배 연기 쏘기, 뒷짐결박, 호랑이 의자 등의 고문 학대를 진행했다. 듣기로는 이전에 납치당한 리펑윈(李鳳雲)도 그곳에서 고박 6 일 동안 시달림을 당했다고 한다.

장쩌민이 발동한 참혹하기 그지없는 이번 박해 중, 박해에 참여한 적이 있고 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성, 시에서부터 하부조직에 이르기까지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좋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직무를 위해, 밥그릇을 위해, 자기보호를 위해 양심을 어기고 법을 위반했는데, 모두 정의적인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책임자 쑨형산(孫恒山)은 2018 년 6 월 8 일 오후 두 시쯤, 사무실에서 부하에게 미친 듯이 칼로 수십 번을 찌렀는데, 병원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 연변주 용정(龍井)시公安국 국장 추이쎈(崔憲),公安국 국장 김철남(金哲男), 안민(安民)파출소 소장 장즈(張志)는 재직 기간에 적극적으로 파룬궁 수련생 탄압에 참여했는데, 2018 년 12 월에 법을 심하게 위반하고 규율을 위반한 이유로 불잡혔다.

희망하건대 연변주에서 여전히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는 공검법 (公安, 검찰, 법원) 직원은 이것들을 거울로 삼아 진상을 파악하고 공을 세워 속죄하여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

박해 관련 기관 또는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